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젠더리뷰

통계로 보는 여성

- 다양한 가족과 가족 가치관

송치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다양한 가족과 가족 가치관¹⁾

송치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가족·출산 관련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가급적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그 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그러나 데이터 현실에서 행정통계 기반의 통계값은 엄밀한 정의에 따라 생산되어 새롭게 부각되는 가족 변화의 다양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조사통계는 각 조사별로 내용 범주와 시간 범주, 저장값 혹은 유량값 설정이 다양한 층위로 혼재되어 있어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때로는 의향 혹은 견해 변수로 규모와 추이를 가늠하려는 모습도 있음.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혼 동거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어 조사되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됨.
 - 통계를 통해 확인된 결혼 및 출산 관련 최근의 가족 변화를 정리하면, △법률혼, 사실혼, 비친족 가구는 증가하고, △이혼은 감소하는 한편, 법률혼은 유지하면서 출혼, 배우자 비동거 추세는 증가하고, △자발적 미혼은 증가하고, 미혼자의 향후 입양 의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한부모 가구 규모는 감소하지만 모+자녀 한부모 가구는 증가 추세이고, 모의 혼인상태는 미혼과 이혼에서 증가 추세를 보임. △생식세포의 냉동 보관 등 과학기술을 활용한 출산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가족의 범위는 반려견까지 확대되는 추세가 확연함.
- 결혼, 가족, 출산 관련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를 통계 수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함.
 - △'22년(혹은 '21년) 대비 '24년에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 혹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소폭 반등하고,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의 동의 비율도 소폭 상승함. 출산과 관련해서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의 동의 비율도 증가함. △비혼 동거, 비혼 출산 관련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도 증가 추세임. 눈길이 갔던 부분으로 '22년 대비 '24년의 증가분에서, 비혼 동거에서는 5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컸고, 비혼 출산 관련해서는 50대 남성의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컸음.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22년 현재 우리 사회의 수용도, 본인 가족 내에서의 수용도를 살펴보았음.
 - △결혼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률혼 선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수용도가 높고, 혼인신고 미신고, 비혼 동거, 사실혼 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수용도는 낮았음. △미혼(비혼)자 혼자 자녀 입양하는 모습, 10대 출산, 미혼(비혼)자가 보조생식기술로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에 대한 수용도는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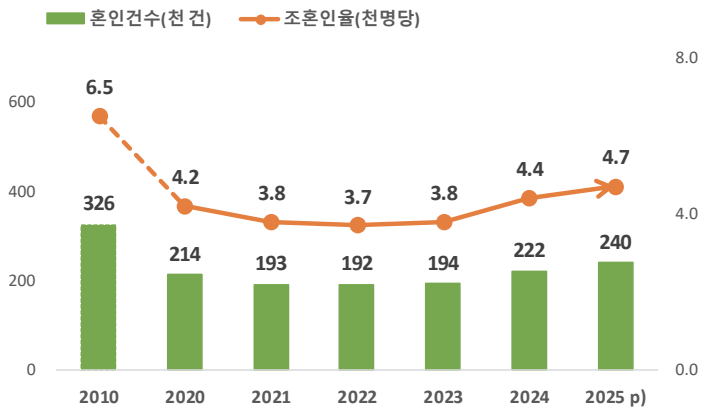
1) 본 내용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2025년 여름호(통권 77호)에 수록된 「다양한 가족 현황과 가족 가치관 변화」를 기초로 하되, 최신 통계 자료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함.

1. 가족 다양성 현황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가족과 출산 관련 변화의 모습을 가급적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하여 그 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함. 그러나 데이터 현실에서 행정통계 기반의 통계값은 엄밀한 정의에 따라 생산되어 새롭게 부각되는 가족 변화의 다양성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조사통계는 각 조사별로 내용범주와 시간범주, 저량값 혹은 유량값 설정이 다양한 층위로 혼재되어 있어 규모 파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의향 혹은 견해 변수로 규모와 추이를 가늠하는 경우도 보임. 가족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혼 동거 문항이 추가되는 등의 발전하는 모습이 있음.

□ 결혼 관련 다양한 가족의 현황

- (법률혼) '24년 현재 혼인 건수는 222천 건(인구 1천 명당 4.4건)으로 '22년 이래 점차 증가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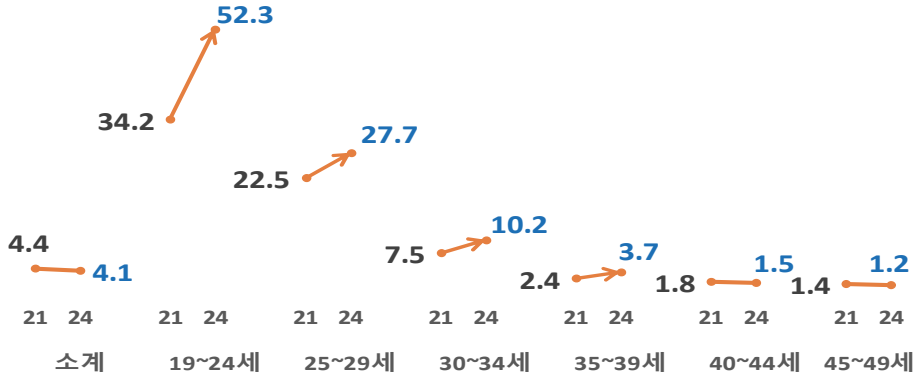


주: 1) p(잠정치)
2)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동향조사」(2010, 2020~2025),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8&tblId=INH_1B8000F_03&conn_path=13 (2026.05.04. 인출)

[그림 1] 혼인 건수, 조혼인율

- (사실혼) '24년 현재 혼인신고 미신고율은 4.1%(신고율 95.9%)임.
- '24년 연령대별 미신고율은 19~24세 52.3%, 25~29세 27.7%로 높고, '21년 대비 '24년에 각각 18.1%p, 5.2%p 증가함. 3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 법률혼 관계의 비중이 감소하고, 사실혼 관계가 증가함.

(단위: %)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AC001&conn_path=13
 (2026.05.04. 인출)

[그림 2] 배우자 또는 애인(파트너)이 있는 경우, 혼인신고 미신고율

- (비혼 동거) '25년 현재 생애과정에서의 비혼 동거(이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2.7% 수준으로 나타남. 남성이 여성보다 6.8%p 높음.
 - 이는 생애 누적 저량값임. 현재까지 비혼 동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조사는 미흡한 실정임.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혼 동거 문항이 신규로 추가되어 조사 결과가 기대됨.
 - 행정통계 중 비친족가구(인구총조사)가 범주상 비혼 동거와 유사하다고 가정하면, '24년 현재 비친족가구는 일반가구 중 2.6% 수준임. 비친족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임

<표 1> 만 19세 이후 비혼 동거(이성관계) 경험 있음 비율

(단위: %)

계	2025	
	남성	여성
12.7	16.1	9.3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송효진 외(2025).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자발적 비혼) '21년 현재 법률혼, 사실혼, 비혼 동거 등을 선택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결혼 의사가 없는 자발적 비혼 인구는 미혼 인구의 18.7% 수준이며, 여성, 35세 이상 집단에서 높음.

<표 2> 동거인이 없는 미혼남녀(19~49세)의 결혼 의사

(단위: %)

구분	2021			
	결혼 의사 있음	결혼 의사 없음	생각해 본 적 없음	아직 결정하지 못함
계	53.6	18.7	3.2	24.5
남성	57.4	16.6	3.0	22.9
여성	47.7	21.9	3.6	26.9
19~24세	52.9	14.1	3.8	29.1
25~29세	60.3	15.5	2.7	21.6
30~34세	57.3	16.8	3.0	22.9
35세 이상	39.7	36.8	2.9	20.5

주: 1) 없음='과거에는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음'
2) 승수 적용으로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CC001&conn_path=I3 (2026.05.04. 인출)

<표 3> 미혼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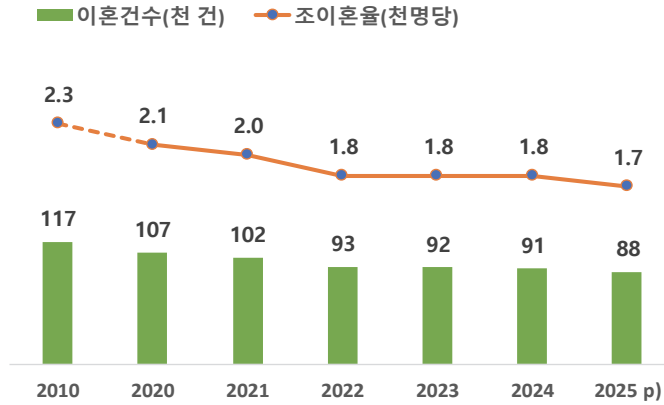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연도	남성		여성	
	미혼 인구	남성 중 미혼 비율	미혼 인구	여성 중 미혼 비율
2022	7,244	34.1	5,408	25.0
2023	7,276	34.2	5,398	24.9
2024	7,309	34.3	5,426	25.0

주: 1) 18세 이상 내국인 대상
2)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총조사」(2022-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MR2060&conn_path=I3 (2026.05.04. 인출)

- (이혼) '24년 현재 이혼 건수는 91천 건(인구 1천 명당 1.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조이혼율²⁾은 1.8건으로 '22년 이래 유지됨.

2) 조이혼율: 특정 기간의 총 이혼건수를 해당 연앙인구(또는 연환산월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연앙인구: 한 해의 법정 상주인구를 6월 30일(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추정한 인구)



주: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동향조사」(2010, 2020~2025),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4&conn_path=I3 (2026.05.04. 인출)

[그림 3] 이혼건수, 조이혼율

- (졸혼) 이혼하지 않은 법률혼 부부가 정서적,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졸혼으로 정의하고, '25년 현재 졸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5%임.

<표 4> 현재 (법률혼)졸혼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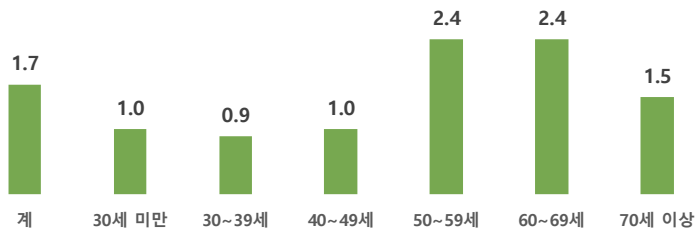
(단위: %)

2025		
계	남성	여성
9.5	9.2	9.7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송요진 외(2025).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우자 비동거) '23년 현재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와 따로 살고 있는, 비동거 비율은 1.7%(동거 98.3%)로, 50~59세, 60~69세에서의 비동거 비율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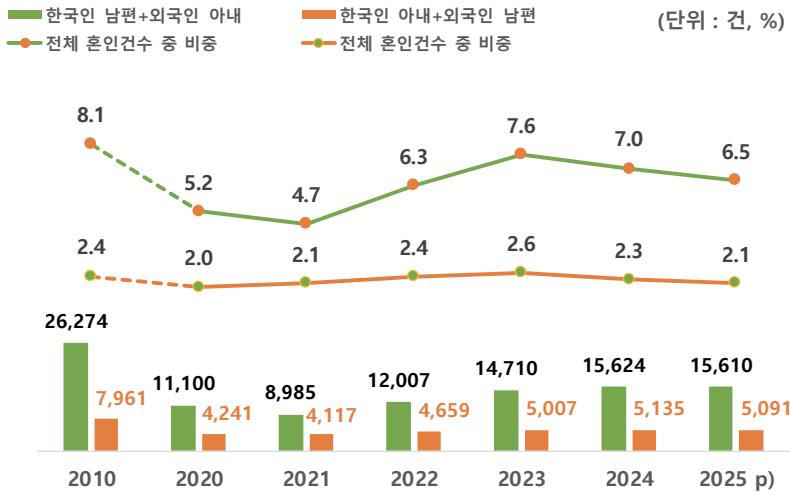
(단위: %)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실태조사」(2023), 성평등가족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01_24AA001600&conn_path=I3 (2026.05.04. 인출)

[그림 4] 배우자 비동거 비율(2023년)

- (외국인과의 법률혼) '24년 현재 외국인과의 결혼 건수는 20천 건으로 '21년 이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한편 '24년 전체 혼인 건수 222천 건 중 외국인과의 결혼 비율은 남성(외국인 아내) 7.0%, 여성(외국인 남편) 2.3%로, '23년 대비 소폭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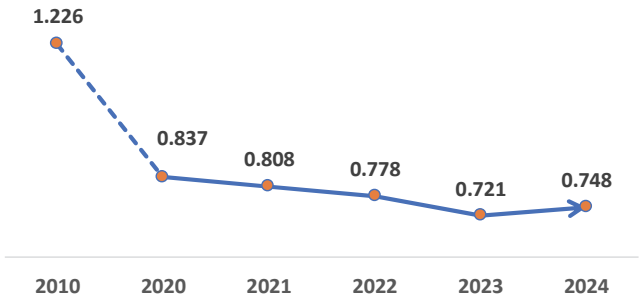
주: 1) p(잠정치)
2)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동향조사」(2010, 2020~2025),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24&conn_path=I3 (2026.05.04. 인출)

[그림 5]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법률혼) 및 비중

□ 출산 관련 다양한 가족의 현황

- (출산율) '24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0.748명으로, '23년을 저점으로 '24년에 소폭 증가함.

(단위 : 가임여성 1명당 명)



주: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동향조사」(2010, 2020~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7&conn_path=I3 (2026.05.06. 인출)

[그림 6] 합계출산율

- (법적 혼인상태별 출산) '24년의 법률혼 외의 출산 비중은 5.8%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

<표 5> 법적 혼인상태별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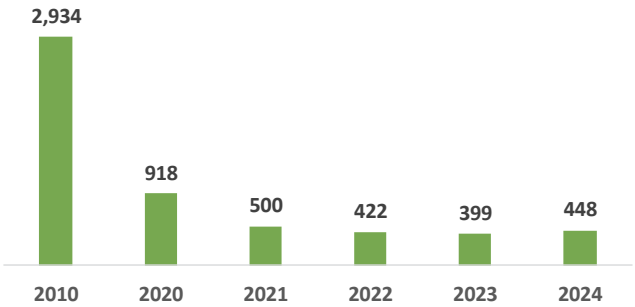
(단위: %)

연도	혼인중의 자	혼인외의 자	미상
2010	97.5	2.0	0.4
2020	97.4	2.5	0.05
2021	97.0	2.9	0.04
2022	96.0	3.9	0.03
2023	95.3	4.7	0.03
2024	94.2	5.8	0.04

주: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동향조사」(2010, 2020~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16&conn_path=I3 (2026.05.06. 인출)

- (10대 출산) '24년 현재 모의 연령 기준 10대 출생아 수는 448명으로, '24년 현재 전체 출산 대비 0.2% 수준임.
 - '23년 대비 '24년의 출생자 규모가 12.3%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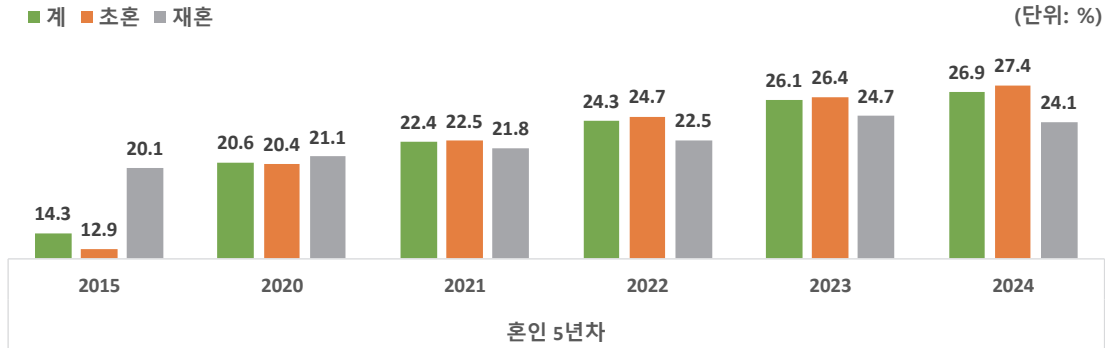
(단위: 명)



주: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동향조사」(2010, 2020~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01&conn_path=I3 (2026.05.06. 인출)

[그림 7] 모의 연령대별(19세 이하) 출생자

- (무자녀 가족) 법률혼 혼인 5년 차 신혼부부 196천 쌍 중 출산 자녀가 없는 부부는 '24년 현재 26.9%(52천 쌍) 수준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자녀 가족 비율은 초혼 신혼부부, 재혼 신혼부부 모두에서 증가함('24년 재혼 신혼부부는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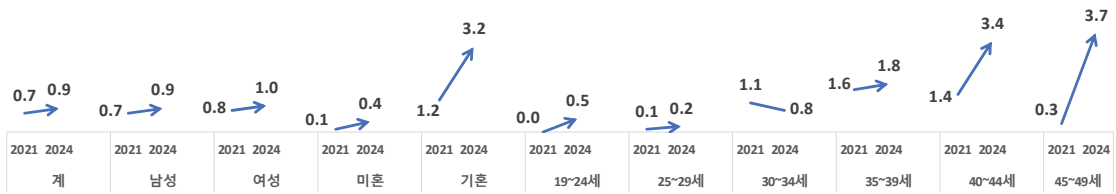


주: 행정통계 수치
자료: 「신혼부부통계」(2015, 2020~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NW1034&conn_path=I3 (2026.05.06.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NW3031&conn_path=I3 (2026.05.06.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NW2031&conn_path=I3 (2026.05.06. 인출)

[그림 8] 신혼부부 혼인 5년 차의 '출산 자녀 없음' 비율

- (향후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냉동) '24년 현재 난자(정자) 냉동 보관을 한 사람의 비율은 0.9%로, '21년 대비 0.2%p 증가함. '24년 현재 45~49세에서 3.7%, 40~44세에서 3.4%, 기혼자에서 3.2% 수준으로 높게 나타남.
- 냉동할 의향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21년 대비 '24년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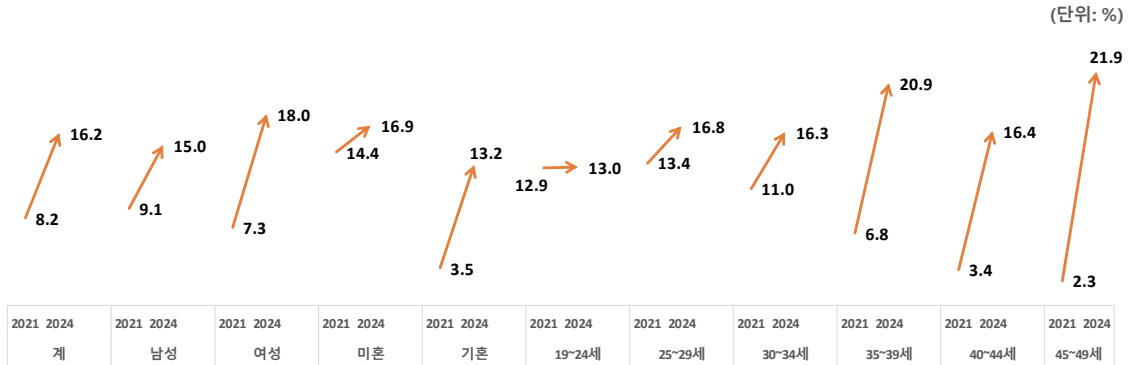
(단위: %)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AD012&conn_path=I3 (2026.05.06. 인출)

[그림 9] 향후 임신을 위하여 난자(정자) 냉동을 이미 함

통계로 보는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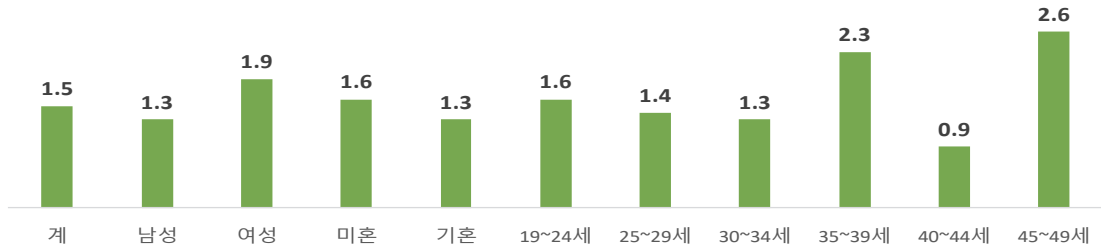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AD012&conn_path=13 (2026.05.06. 인출)

[그림 10] 향후 임신을 위하여 난자(정자) 냉동을 할 의향

의향 있음 (%)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4AC030&conn_path=13 (2026.05.06. 인출)

[그림 11] 향후 임신을 위해 제3자의 난자(정자)를 기증받을 의향(2024년)

□ 그 외 다양한 가족의 현황

- (미혼 한부모가족) 가장 어린 자녀의 연령이 18세 이하인 미혼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이혼, 사별 상태인 모 또는 부(원거리 거주 부부 제외) 가구를 기준으로 한부모가족 통계를 집계함.
 - '24년 현재 한부모 가구 수는 34만 가구로 감소 추세인 반면, '모+자녀' 세대구성 한부모 가구는 '21년 이래로 소폭 증가 추세임.

<표 6> 한부모 가구 규모 및 세대 구성별 비중

(단위: 가구, %)

연도	한부모가구 계	세대 구성별 비중			
		부+자녀	부+자녀+기타가구원	모+자녀	모+자녀+기타가구원
2016	445,801	21.0	13.5	51.6	13.9
2020	373,225	20.7	11.9	53.4	14.0
2021	368,548	20.4	11.7	<u>53.3</u>	14.6
2022	355,123	20.4	11.3	<u>53.6</u>	14.7
2023	349,716	20.5	10.9	<u>53.9</u>	14.8
2024	348,678	20.5	10.5	<u>54.3</u>	14.7

주: 1) 자녀(가장 어린 자녀 연령이 18세 이하 미혼자녀)
2) 미혼모부, 이혼, 사별 포함
3)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총조사」(2016, 2020~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P1601&conn_path=I3 (2026.05.06. 인출)

- 혼인상태별로는 '24년 현재 이혼 상태의 한부모 가구 비중이 84.2%로 가장 많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혼 한부모 가구와 미혼(비혼) 한부모 가구의 증가 추세가 확인됨.
- 미혼(비혼) 한부모 가구의 연령별*연도별 비중을 살펴보면, 30대 이하가 9.3~10.8% 비중으로 가장 많고, 4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폭의 증가 추세(1.8→3.0%, 2.2→3.4%)가 확인됨.

<표 7> 한부모 연령대별 혼인상태

(단위: 가구, %)

구분	연도	이혼	사별	별거	미혼	기타
계	2015	<u>77.1</u>	15.8	-	-	7.1
	2018	<u>77.6</u>	15.4	2.9	<u>4.0</u>	0.1
	2021	<u>81.6</u>	11.6	2.0	<u>4.7</u>	0.1
	2024	<u>84.2</u>	10.4	0.6	<u>4.8</u>	-
30대 이하	2015	78.3	9.6	-	-	12.1
	2018	74.9	11.4	4.4	9.3	0.0
	2021	79.5	6.4	3.1	10.8	0.1
	2024	83.0	7.0	0.4	9.7	-
40대	2015	78.0	17.2	-	-	4.7
	2018	80.8	15.0	2.4	<u>1.8</u>	0.1
	2021	82.9	13.4	0.9	<u>2.8</u>	0.1
	2024	85.2	11.0	0.8	<u>3.0</u>	-

구분	연도	이혼	사별	별거	미혼	기타
50대 이상	2015	71.0	20.9	-	-	8.1
	2018	71.5	24.1	2.0	2.2	0.1
	2021	79.7	12.5	4.9	2.8	0.1
	2024	83.0	13.6	0.0	3.4	-

주: 1) '24년 이전 조사는 미혼, '24년 조사는 미혼·비혼으로 조사함.

2) 자녀(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한부모가족실태조사」(2015, 2018, 2021, 2024), 성평등가족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0GE_3021300189&conn_path=I3 (2026.05.06. 인출)

- (비친족 가족) '24년 현재 비친족 가구는 일반 가구 중 2.6% 수준(580천 가구)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 비친족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1명임.

<표 8> 비친족 가구 수

(단위: 가구, %, 명)

연도	일반가구 계			
		비친족 가구 계	비친족 가구 비율	평균 가구원 수
2015	19,111,030	214,421	1.1	2.2
2020	20,926,710	423,459	2.0	2.2
2021	21,448,463	472,660	2.2	2.1
2022	21,773,507	513,889	2.4	2.1
2023	22,073,158	545,008	2.5	2.1
2024	22,294,419	580,413	2.6	2.1

주: 1) 6인 이상 비친족 가구는 집단가구로 분류하여 제외됨.

2) 내국인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인도 일반가구원으로 집계됨.

3)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5인 이하 비친족 가구, 1인 가구를 포함함

4)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총조사」(2015, 2020~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C1516&conn_path=I3 (2026.05.06. 인출)

- (미혼+입양 가족) '24년 현재 미혼이면서 향후 입양을 희망하는 인구 비율은 2.7%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5~29세, 35~39세 연령대에서 2.4%로 높음.

<표 9> 향후 입양 의향

(단위: %)

구분	2024		
	의향 있음	의향 없음	모르겠음
계	2.0	94.7	3.3
남성	1.8	94.7	3.5
여성	2.1	94.8	3.1
미혼	2.7	92.2	5.2
기혼	1.2	97.5	1.3
19~24세	1.8	92.9	5.3
25~29세	2.4	91.9	5.7
30~34세	2.2	94.0	3.9
35~39세	2.4	95.0	2.6
40~44세	2.2	96.2	1.5
45~49세	0.8	98.0	1.2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4AC032&conn_path=I3 (2026.05.06. 인출)

- (반려동물 가족) '25년 현재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로, 주 양육자는 20대(39.0%) > 30대(32.5%) > 40대(31.4%) 순으로 높게 나타남.
- '20년 인구총조사 결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15.0%에서 '25년 29.2% 수준으로 증가함.

<표 10> 반려동물 양육 가구 여부

(단위: %)

구분		2025
		현재 거주지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계		29.2
주 양육자 연령	20대	39.0
	30대	32.5
	40대	31.4
	50대	28.8
	60대 이상	26.0

주: 조사통계 수치
자료: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2025), 농림축산식품부

<표 11> 반려동물 보유가구 수 및 비율

(단위: 가구, %)

구분	2020		
	일반가구(비율)	반려동물미보유가구(비율)	반려동물보유가구(비율)
계	20,926,710(100.0)	17,797,748(85.0)	3,128,962(15.0)

주: 행정통계 수치

자료: 「인구총조사」(2020),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H2013&conn_path=I3

- '23년 현재 노후에 반려동물과 지내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2.1%로, 미혼인 사람은 7.4%, 이혼 또는 별거 7.0%, 25~29세 5.8% 순으로 높음.

<표 12> 노후에 같이 지낼 사람

(단위: %)

구분	2023				
	배우자 혹은 자녀	나 혼자	반려동물	친구	기타
계	79.2	17.3	<u>2.1</u>	1.1	0.3
남성	84.9	12.6	1.4	0.8	0.3
여성	73.5	22.0	2.8	1.4	0.2
25~29세	71.2	19.7	<u>5.8</u>	2.4	0.9
30~39세	82.1	11.8	3.3	2.5	0.4
40~49세	85.4	12.4	1.2	0.7	0.2
50~59세	84.6	13.3	1.1	0.8	0.2
60~69세	79.1	18.0	2.1	0.7	0.2
70세 이상	66.4	31.3	1.7	0.5	0.2
미혼	52.4	34.6	<u>7.4</u>	4.4	1.3
유배우	95.1	4.1	0.4	0.4	0.0
이혼 또는 별거	17.4	72.9	<u>7.0</u>	1.8	0.9
사별	25.6	68.5	4.6	1.0	0.2

주: 1) 유배우, 배우자(사실혼, 비혼 동거 포함)

2)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실태조사」(2023), 성평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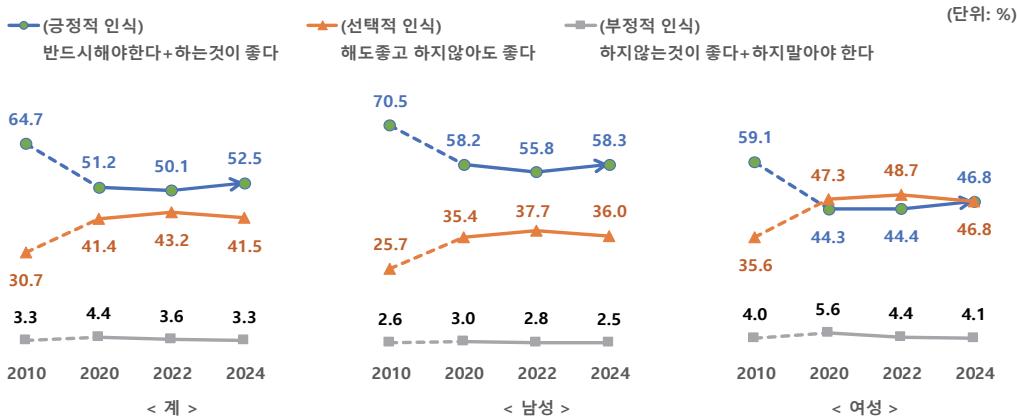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01_24AA006500&conn_path=I3 (2026.05.06. 인출)

2. 가족 가치관 변화

결혼과 가족 관련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를 살펴봄. 가치관 및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통계 수치에는 단순히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응답자의 경제·사회 및 생활 관련 요인들이 투영되어 있어, 단일한 생각과 인식의 변화로 환원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 (결혼에 대한 인식) '24년 현재 결혼을 권장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³⁾(52.5%)은 결혼을 당위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인식하는 사람의 비율⁴⁾(41.5%) 보다 11.0%p 정도 큼.
 - 코로나19 이후 '22년 대비 '24년의 긍정적 인식 비율은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함(남성 55.8→58.3%, 여성 44.4→46.8%).
 - '22년 대비 '24년의 긍정적 인식 비율 변화분이 큰 집단은 △젊은층(13~19세 4.6%p ↑, 20~29세 4.6%p ↑), △미혼층(미혼 4.3%p ↑, 특히 미혼 남성 4.7%p ↑), △고소득층(600만 원 이상 4.5% ↑), △연령*성별군에서는 13~19세 남성(6.8%p ↑), 20~29세 남성(4.9% ↑), 30~39세 여성(5.2% ↑)임.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⑥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을 제외하여 합계는 100%가 아님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55FA060R&conn_path=I3 (2026.05.08. 인출)

[그림 12] 결혼에 대한 견해

3) 「사회조사」 문항 42. '귀하는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반드시 해야 한다'와 '②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 비율 합으로, 결혼을 권장하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비율로 파악함.
반면 부정적 인식 비율은 문항 42에 대해 '③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④하지 말아야 한다'의 응답 비율 합임.
4) 「사회조사」 문항 42에 대해 '③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의 응답 비율로, 결혼을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바라보는 인식 비율로 파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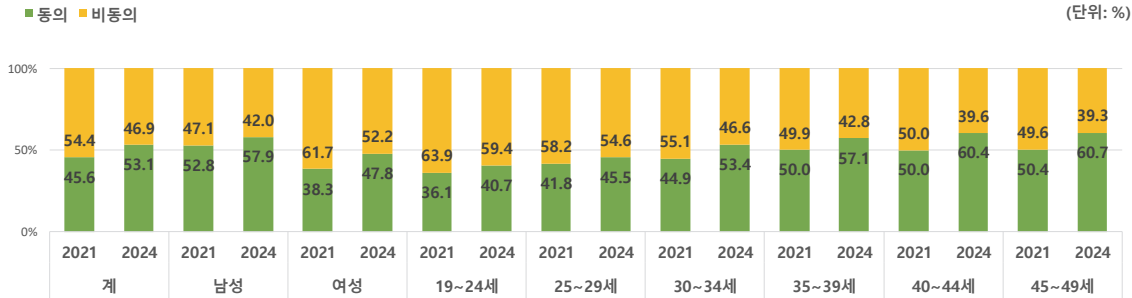
<표 13> 결혼에 대한 견해: '22년 대비 '24년 긍정 인식 변화분 큰 집단

(단위: %, %p)

항목	연도	긍정적 인식 (%)	'22년 대비 '24년 변화분(%p)	선택적 인식 (%)	부정적 인식 (%)
계	2022	50.1	2.4	43.2	3.6
	2024	52.5		41.5	3.3
13~19세	2022	29.1	4.6	56.8	4.9
	2024	33.7		54.5	4.2
20~29세	2022	35.1	4.6	53.5	6.4
	2024	39.7		50.4	4.8
미혼	2022	30.6	4.3	57.0	6.0
	2024	34.9		53.9	5.2
- 미혼 남성	2022	36.9	4.7	51.3	4.3
	2024	41.6		47.8	4.0
- 미혼 여성	2022	22.1	3.9	64.5	8.1
	2024	26.0		61.9	7.0
600만 원 이상	2022	47.5	4.5	46.5	3.6
	2024	52.0		43.0	2.8
13~19세*남성	2022	36.3	6.8	50.5	3.0
	2024	43.1		46.0	2.8
20~29세*남성	2022	41.9	4.9	47.2	4.7
	2024	46.8		43.0	3.9
20~29세*여성	2022	27.5	4.7	60.5	8.2
	2024	32.2		58.3	5.8
30~39세*여성	2022	31.8	5.2	61.5	4.5
	2024	37.0		55.1	5.5

주: 1) 13세 이상 인구
2) '⑥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응답 비율의 합계는 100%가 아님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60R&conn_path=13 (2026.05.0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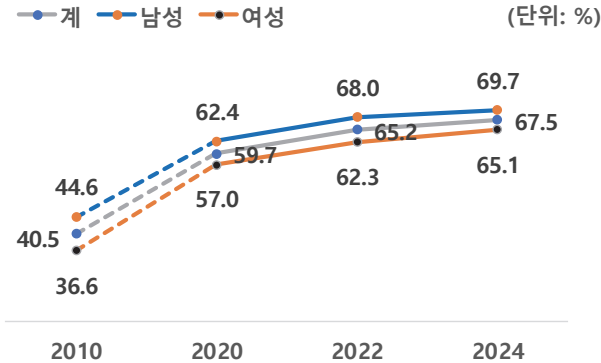
-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에 ‘24년 현재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은 53.1%임. ‘21년 대비 ‘24년에 동의 비율이 증가한 가운데, ‘21년 대비 ‘24년에 동의 비율 변화분이 큰 집단은 여성(38.3→47.8%, 9.5%p ↑), 30~34세(44.9→53.4%, 8.5%p ↑), 40~44세(50.0→60.4%, 10.4%p ↑), 45~49세(50.4→60.7%, 10.3%p ↑)임.



주: 1) 가중치 적용으로 합이 99.9~100.1% 수준임. 그림은 합을 100%로 작성함
2) 조사통계 수치
자료: 「가족과출산조사」(2021,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1&tblId=DT_331001_2021AH013&conn_path=13 (2026.05.0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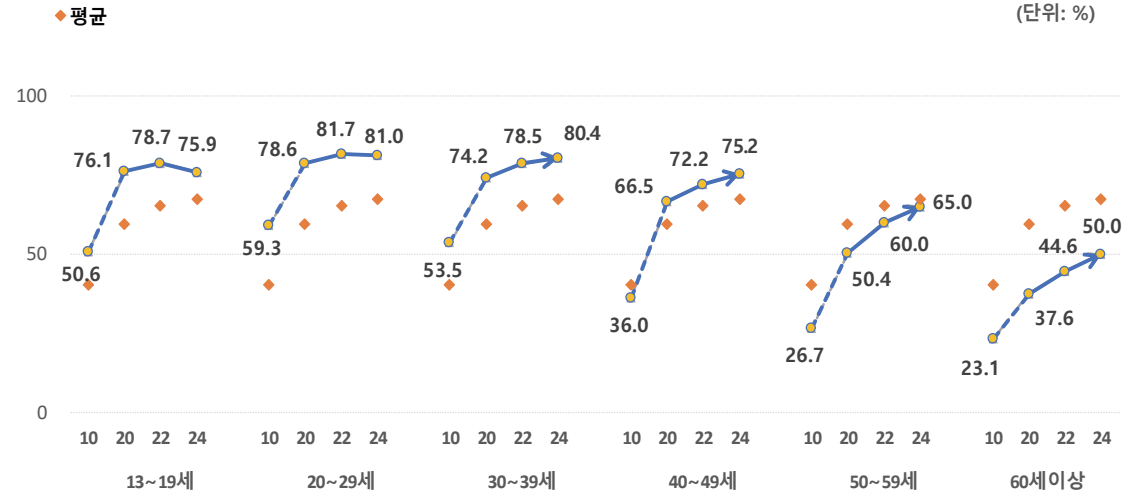
[그림 13] 결혼 가치관: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

- (비혼 동거)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 증가세로, '24년 현재 동의 비율은 67.5%이며, 남성의 동의 비율(69.7%)이 여성(65.1%)보다 다소 높음.
 - 연령대별로는 15~49세의 동의 비율이 평균을 상회함.
 -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는 30대 이상, 미혼, 이혼 집단에서 나타남.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50~59세(60.0→65.0%, 5.0%p ↑), 60세 이상(44.6→50.0%, 5.4%p ↑)임.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13 (2026.05.08. 인출)

[그림 14]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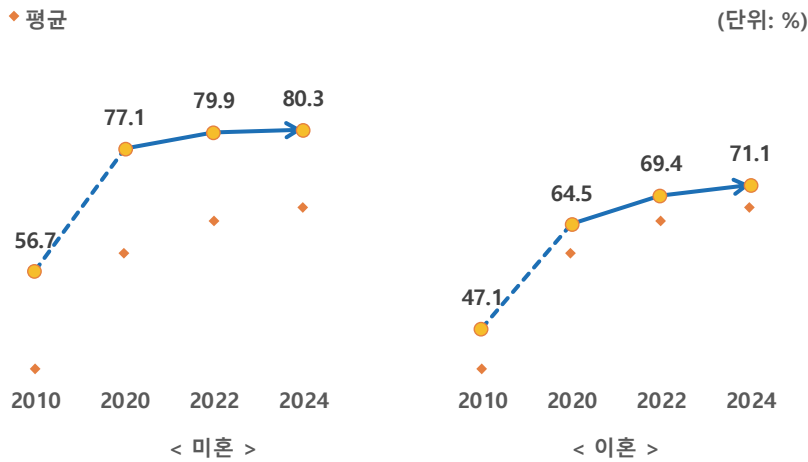


- 주: 1) '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13 (2026.05.08. 인출)

[그림 15] 연령대별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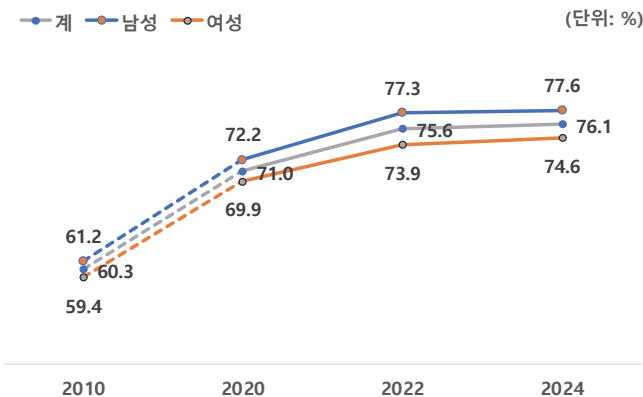
-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4R&conn_path=13 (2026.05.0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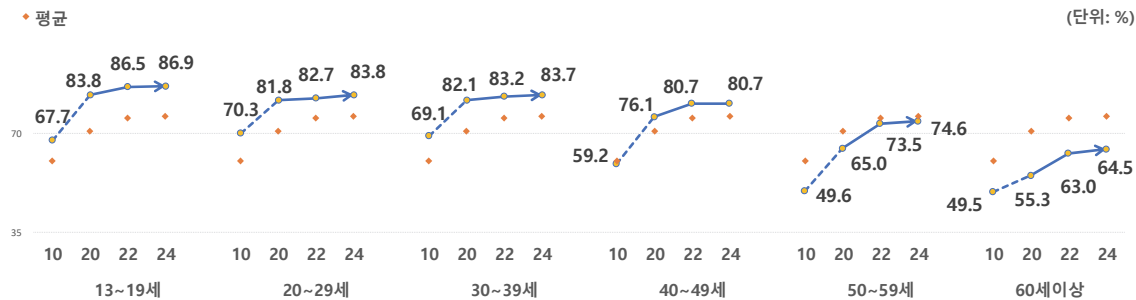
[그림 16] 혼인상태별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

- (외국인과 결혼)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에 동의하는 사람 비율은 지속적 증가세로, '24년 현재 동의 비율은 76.1%이고, 남성의 동의 비율(77.6%)이 여성(74.6%)보다 다소 높음.
- 연령대별로는 13~49세의 동의 비율이 평균을 상회함.
-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는 40대 외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남.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I3 (2026.05.08.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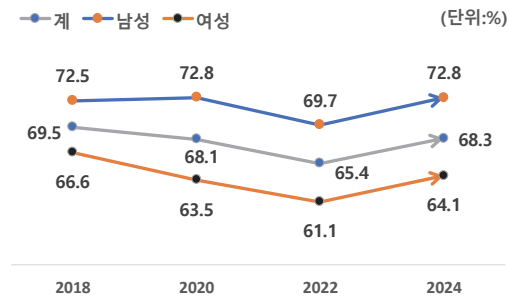
[그림 17]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3R&conn_path=I3 (2026.05.08. 인출)

[그림 18] 연령대별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

- (결혼-출산 연계 인식)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에 '24년 현재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은 68.3%로, 남성(72.8%)이 여성(64.1%)보다 높음.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은 남녀 모두 증가함.
 - 연령대별로는 13~49세의 동의 비율이 평균을 하회함.
 -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남.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13~19세 남성(48.6→53.7%, 5.1%p ↑), 20~29세 남성(54.1→60.3%, 6.2%p ↑), 20~29세 여성(32.6→41.8%, 9.2%p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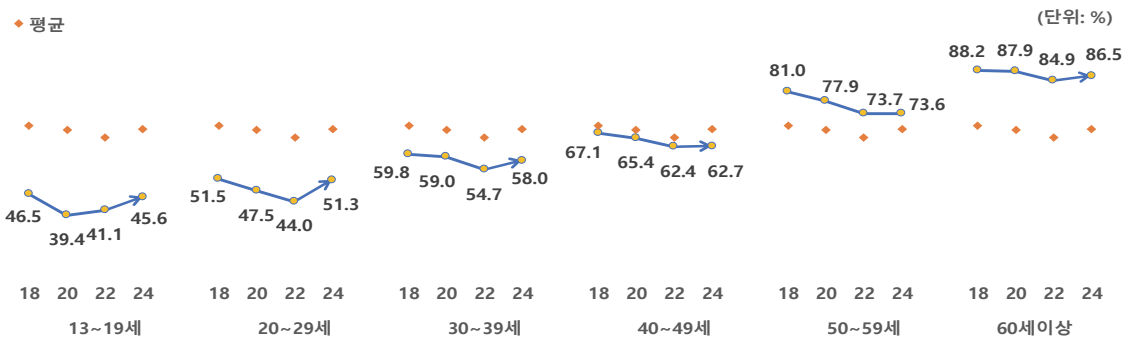


- 주: 1) 13세 이상 인구
 2) '18년 신규 조사 항목임
 3)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약간 동의한다’
 4)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5)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8,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6R&conn_path=13 (2026.05.08. 인출)

[그림 19]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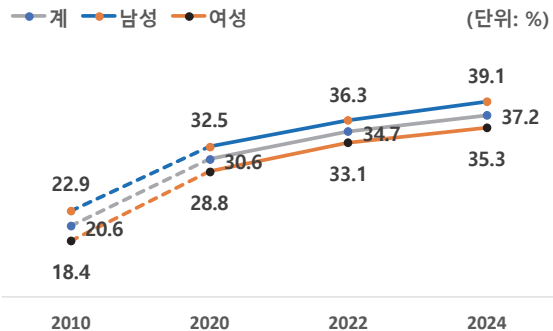
- 주: 1) 13세 이상 인구
 2) '18년 신규 조사 항목임
 3)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약간 동의한다’
 4)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5)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8,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6R&conn_path=13 (2026.05.08. 인출)

[그림 20] 연령대별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

- (비혼 출산)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에 동의하는 사람의 비율은 지속적 증가세로, '24년 현재 동의 비율은 37.2%이고, 남성의 동의 비율(39.1%)이 여성(35.3%)보다 다소 높음.
- 연령대별로는 15~49세의 동의 비율이 평균을 상회함.
-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는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남. '22년 대비 '24년의 동의 비율 증가분이 상대적으로 큰 집단은 20~29세 여성(37.7→42.4%, 4.7%p ↑), 50~59세 남성(34.1→38.7%, 4.6%p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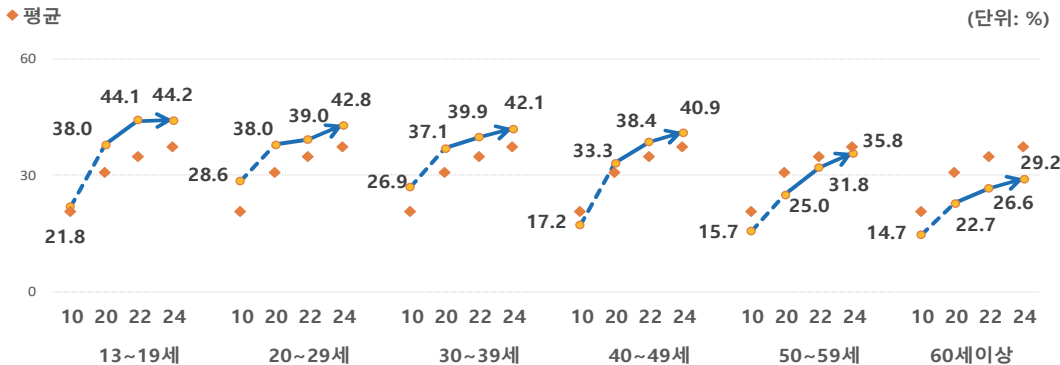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3 (2026.05.08. 인출)

[그림 21]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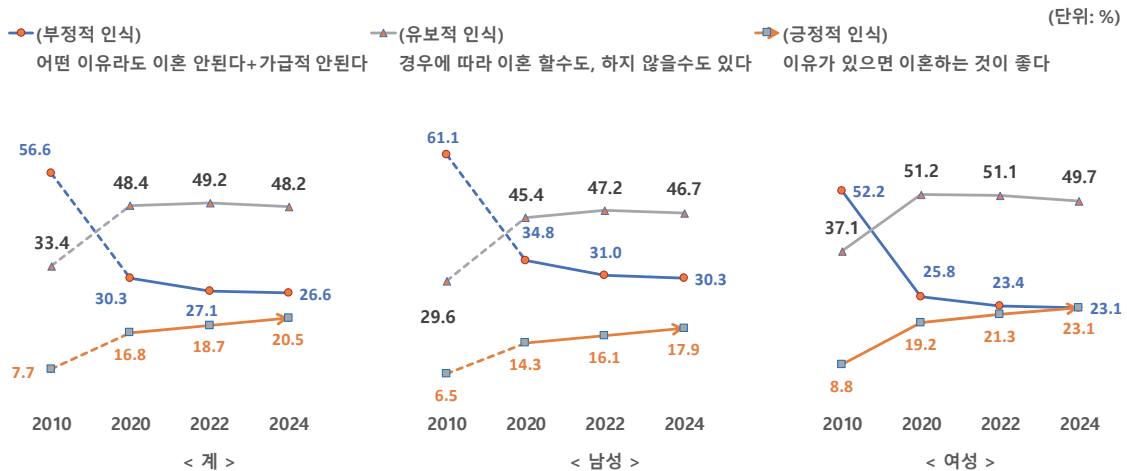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동의 비율='전적으로 동의한다'+ '약간 동의한다'
3) 동의 비율+비동의 비율=100%
4)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51R&conn_path=I3 (2026.05.08. 인출)

[그림 22] 연령대별 동의 비율_결혼문화에 대한 태도(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

- (이혼에 대한 견해) '24년 현재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중립적·유보적 인식 비율⁵⁾(48.2%),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부정적 인식 비율⁶⁾(26.6%), '이혼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긍정적 인식 비율⁷⁾(20.5%) 순으로 높게 나타남. '22년 대비 '24년의 긍정적 인식 비율은 남녀 모두 소폭 증가함(남성 16.1→17.9%, 여성 21.3→23.1%).
- 혼인 상태별로는 '24년 현재 미혼, 이혼 집단에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부정적 인식 비율을 상회함.
- 연령별*성별로는 '24년 현재 20~29세 남성, 13~59세 여성에서 긍정적 인식 비율이 부정적 인식 비율을 상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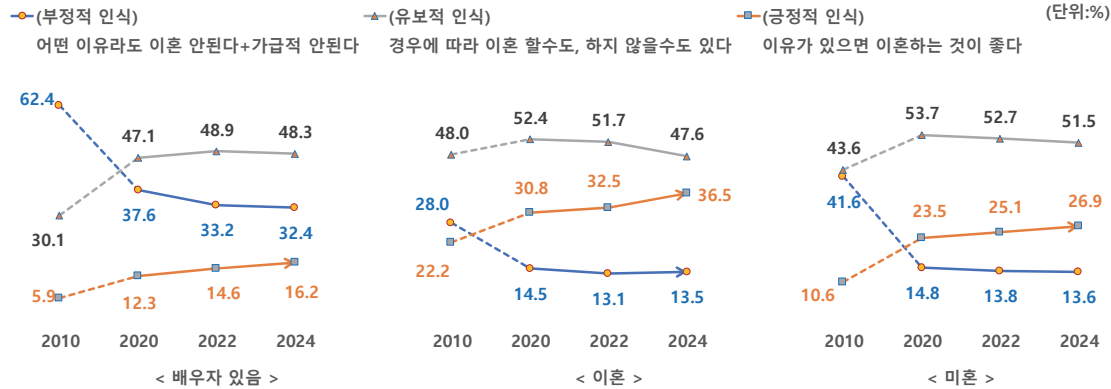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⑥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을 제외하여 합계는 100%가 아님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5SFA070R&conn_path=13 (2026.05.08. 인출)

[그림 23] 성별_이혼에 대한 견해

- 5) 「사회조사」 문항 48. '귀하는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③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의 응답 비율로, 이혼까지 고려해야 할 만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선 고려 이후로 견해를 유보하거나 지금으로서는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인식 비율로 파악함.
- 6) 「사회조사」 문항 48에 대해 '①어떤 이유라도 이혼해서는 안 된다'와 '②이유가 있더라도 가급적 이혼해서는 안 된다'의 응답 비율 합으로, 이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율로 파악함.
- 7) 「사회조사」 문항 48에 대해 '④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하는 것이 좋다'의 응답 비율로, 이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비율로 파악함.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㉔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을 제외하여 합계는 100%가 아님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 (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I3 (2026.05.08. 인출)

[그림 24] 혼인상태별_이혼에 대한 견해

<표 14> 연령*성별군_이혼에 대한 견해

(단위: %, %p)

연령대	연도	남성			여성		
		부정적 인식 (a)	긍정적 인식 (b)	인식차이 (a-b)	부정적 인식 (a)	긍정적 인식 (b)	인식차이 (a-b)
13~19세	2010	53.2	7.0	46.2	36.5	12.2	24.3
	2020	23.2	16.3	6.9	8.0	<u>24.9</u>	-16.9
	2022	19.1	16.3	2.8	10.1	<u>25.3</u>	-15.2
	2024	20.5	19.9	0.6	9.3	<u>23.8</u>	-14.5
20~29세	2010	48.7	7.9	40.8	35.7	12.5	23.2
	2020	18.3	<u>18.7</u>	-0.4	9.0	<u>30.0</u>	-21.0
	2022	17.3	<u>20.4</u>	-3.1	9.4	<u>30.7</u>	-21.3
	2024	17.9	<u>22.6</u>	-4.7	8.0	<u>32.7</u>	-24.7
30~39세	2010	53.8	8.0	45.8	38.4	9.7	28.7
	2020	28.8	17.1	11.7	15.4	<u>20.0</u>	-4.6
	2022	24.1	17.5	6.6	13.6	<u>23.9</u>	-10.3
	2024	22.6	21.2	1.4	13.4	<u>25.6</u>	-12.2
40~49세	2010	61.9	6.1	55.8	48.2	9.4	38.8
	2020	31.4	14.3	17.1	16.4	<u>18.4</u>	-2.0
	2022	27.6	17.3	10.3	14.8	<u>21.8</u>	-7.0
	2024	26.1	17.6	8.5	14.0	<u>25.0</u>	-11.0

연령대	연도	남성			여성		
		부정적 인식 (a)	긍정적 인식 (b)	인식차이 (a-b)	부정적 인식 (a)	긍정적 인식 (b)	인식차이 (a-b)
50~59세	2010	67.8	5.5	62.3	63.3	7.2	56.1
	2020	36.6	13.0	23.6	27.2	18.3	8.9
	2022	32.1	15.5	16.6	20.8	21.0	-0.2
	2024	28.0	17.4	10.6	19.0	23.7	-4.7
60세 이상	2010	78.7	4.7	74.0	78.6	4.4	74.2
	2020	54.3	10.1	44.2	48.8	13.2	35.6
	2022	49.0	11.9	37.1	43.9	14.9	29.0
	2024	47.6	13.6	34.0	43.4	16.8	26.6

주: 1) '10년은 15세 이상 인구, '20~'24년은 13세 이상 인구

2) ㉔경우에 따라 이혼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와 ㉔잘 모르겠다 응답 비율을 제외하여 합계는 100%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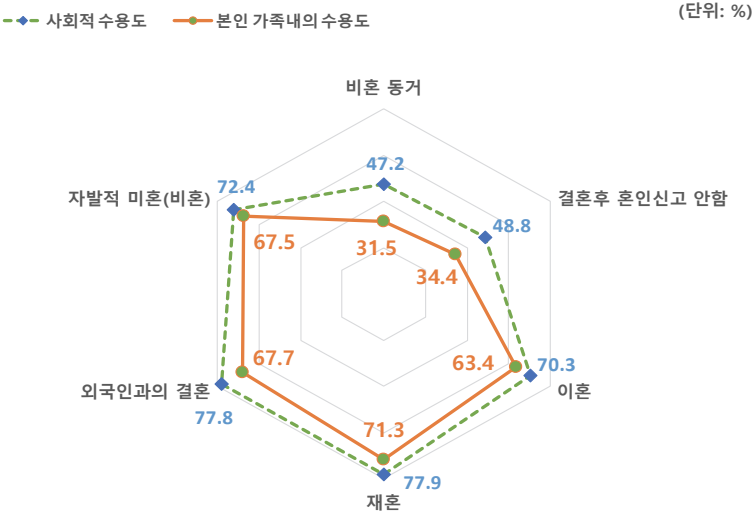
3) 조사통계 수치

자료: 「사회조사」(2010, 2020, 2022, 2024), 국가데이터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FA070R&conn_path=13 (2026.05.08. 인출)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도

- 결혼 관련 다양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본인 가족 내에서의 수용도를 살펴보면, '22년 현재 두 개의 수용도 모두 재혼(77.9%, 71.3%) > 외국인과의 결혼(77.8%, 67.7%) > 자발적 미혼(비혼)(72.4%, 67.5%) > 이혼(70.3%, 63.4%) > 혼인신고 미신고(48.8%, 34.4%) > 비혼 동거(47.2%, 31.5%) 순으로 높음.
 - 기존의 법적 혼인 선상에서의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높고, 법적 혼인을 벗어난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수용도는 전반적으로 낮음. 혼인신고 미신고 현상과 비혼 동거 현상에 대한 수용도가 가장 낮음.
 - 모든 항목에서 사회적 수용도 대비 본인 가족 내의 수용도가 낮음.
 - 사회적 수용도와 본인 가족 내에서의 수용도 간 차이는 비혼 동거(15.7%p), 혼인신고 미신고(14.5%p) 순으로 큼.
 - 연령대별 두 수용도 간의 차이는 20~29세에서 이혼과 재혼 항목에서 차이가 15.1%p, 15.9%p로 크고(본인 가족 내 수용도가 사회적 수용도 보다 큼), 50~59세에서는 비혼 동거(본인 가족 내 수용도가 보다 작음) 15.5%p, 60세 이상에서는 비혼 동거 22.0%p, 혼인신고 미신고 22.0%p, 외국인과 결혼 17.2%p, 이혼 16.5%p 순으로 차이가 큼(본인 가족내 수용도가 보다 작음).



주: 1) 가족 관련 가치관(부가 조사, 9차 웨이브)
문4B. ()님은 아래와 같은 결혼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5. ()님의 자녀가 결혼과 관련하여 아래의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자녀가 없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응답함. 아들, 딸 구분 없이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1) 결혼 의향이 없는 남녀가 동거하는 것
(2) 결혼식을 올린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3) 이혼하는 것
(4) 재혼하는 것
(5)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6) 성인 나이에 결혼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미혼(비혼)으로 사는 것
2) 수용도=㉔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㉔대체로 수용하고 있음의 비율의 합
3) 조사통계 수치로 횡단가중치 부여
자료: 「한국가족패널조사」(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2022070&conn_path=13 (2026.05.08.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2022071&conn_path=13 (2026.05.08. 인출)

[그림 25] 결혼 관련 다양한 현상에 대한 수용도(사회적 수용도, 본인 가족 내의 수용도)(2022년)

<표 15> 결혼 관련 다양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본인 가족 내의 수용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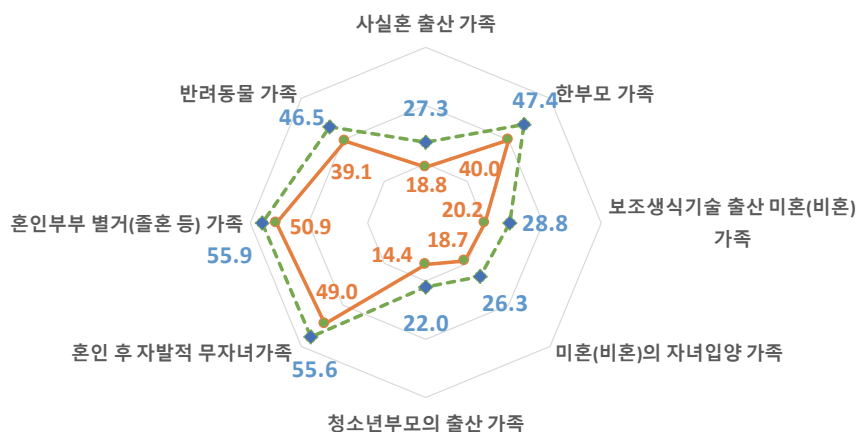
(단위: %p)

연령	2022					
	비혼 동거	혼인 미신고	이혼	재혼	외국인과 결혼	자발적 미혼(비혼)
20~29세	3.0	-2.9	-15.1	-15.9	-3.9	-7.0
30~39세	13.7	12.8	4.0	8.3	7.6	-5.6
40~49세	12.7	11.4	2.6	4.3	6.9	2.8
50~59세	15.5	14.0	7.2	8.3	9.3	7.7
60세 이상	22.0	22.0	16.5	12.2	17.2	12.7

주: 1) 수용도=㉔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㉔대체로 수용하고 있음의 비율의 합
2) 수용도 차이= 사회적 수용도-본인 가족 내의 수용도
3) 조사통계 수치로 횡단가중치 부여
자료: 「한국가족패널조사」 부가조사(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자료 분석
<https://gsis.kwdi.re.kr/klowf/portal/dataSet/rdssListPage.do?phDivCd=P> (2026.05.08. 인출)

- 가족 관련 다양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본인 가족 내에서의 수용도를 살펴보면, '22년 현재 두 개의 수용도 모두 혼인부부 별거(졸혼 등) 가족(55.9%, 50.9%) > 혼인 후 자발적 무자녀 가족(55.6%, 49.0%) > 한부모 가족(47.4%, 40.0%) > 반려동물 가족, (46.5%, 39.1%) > 보조생식기술 출산 미혼(비혼) 가족(28.8%, 20.2%) > 사실혼 출산 가족(27.3%, 18.8%) > 미혼(비혼)의 자녀입양 가족(26.3%, 18.7%) > 청소년부모의 출산 가족(22.0%, 14.4%) 순으로 높음.
- 모든 항목에서 사회적 수용도 대비 본인 가족 내의 수용도가 낮음.
- 두 개의 수용도 간 차이는 보조생식기술 출산 미혼(비혼) 가족(8.6%p), 사실혼 출산 가족(8.5%p) 순으로 큼.
- 연령대별로 두 수용도 간의 차이는 20~29세에서는 혼인 후 자발적 무자녀 가족 항목에서 차이가 13.9%p로 크고(본인 가족 내 수용도가 사회적 수용도 보다 큼), 30~39세에서는 미혼(비혼)의 자녀 입양(본인 가족 내 수용도가 보다 작음) 10.8%p, 50~59세에서는 청소년 부모의 출산 가족(본인 가족 내 수용도가 보다 작음) 10.8%p, 60세 이상에서는 혼인 후 자발적 무자녀 가족 16.0%p, 반려동물 가족 15.6%p, 한부모가족 12.8%p, 혼인부부 별거(졸혼 등) 가족 12.2%p, 사실혼 출산 11.5%p, 청소년 부모의 출산 가족 10.6%p, 보조생식기술 출산 미혼(비혼) 10.5%p 순으로 차이가 큼(본인 가족 내 수용도가 보다 작음).

◆ 사회적 수용도 ◆ 본인 가족내의 수용도 (단위: %)



주: 1) 문6과 문7 문항으로 앞의 문4B와 문5와 유사 내용임.

(1) 남녀가 법적 부부가 되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2)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 부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

(3) 미혼(비혼) 1인 가구가 보조생식기술(기증된 난자·정자에 의한 인공수정, 대리모 출산 등)을 사용하여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4) 미혼(비혼) 1인 가구가 혼자서 아이를 입양하는 것
(5) 미성년 나이에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는 것
(6) 결혼했어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것
(7)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유지하면서 부부가 별거하는 것(졸혼 등)
(8) 결혼 또는 출산입양으로 가족을 이루는 대신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선택하는 것
2) 수용 정도=‘㉔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㉓대체로 수용하고 있음’의 합
3) 조사통계 수치로 횡단가중치 부여
자료: 「한국가족패널조사」(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2022072&conn_path=I3 (2026.05.08. 인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338001_2022073&conn_path=I3 (2026.05.08. 인출)

[그림 26] 가족의 다양한 모습에 대한 수용도(사회적 수용도, 본인 가족 내 수용도)(2022년)

<표 16> 가족 관련 다양한 현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와 본인 가족 내 수용도 차이

(단위: %p)

연령	2022							
	사실혼 출산	한부모 가족	보조생식기술 출산 미혼(비혼)	미혼(비혼)의 자녀입양	청소년부모의 출산 가족	혼인 후 자발적 무자녀가족	혼인부부 별거 (졸혼 등)가족	반려동물 가족
20~29세	2.9	-5.3	3.8	1.2	-2.6	<u>-13.9</u>	-9.5	-4.9
30~39세	6.5	3.7	7.2	<u>10.8</u>	4.2	-2.1	-0.7	0.4
40~49세	7.0	8.1	7.7	5.2	7.2	4.0	2.9	2.8
50~59세	8.9	7.1	9.8	7.4	<u>10.8</u>	9.8	6.1	8.9
60세 이상	<u>11.5</u>	<u>12.8</u>	<u>10.5</u>	9.2	<u>10.6</u>	<u>16.0</u>	<u>12.2</u>	<u>15.6</u>

주: 1) 수용도=‘㉔전적으로 수용하고 있음’+‘㉓대체로 수용하고 있음’의 비율의 합
2) 수용도 차이= 사회적 수용도-본인 가족 내 수용도
3) 조사통계 수치로 횡단가중치 부여
자료: 「한국가족패널조사」 부가조사(20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자료 분석
<https://gsis.kwdi.re.kr/klowf/portal/dataSet/rdssListPage.do?phDivCd=P> (2026.05.08. 인출)

• 참고문헌 및 자료 •

송효진·마경희·남궁윤영·선보영·양준영·박미진(2025). 저출생·고령화 시대 가족다양성에 조응하는 정책 전략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가데이터처(2010, 2018, 2020, 2022, 2024). 「사회조사」

국가데이터처(2015, 2020~2024). 「신혼부부통계」

국가데이터처(2010, 2020~2025). 「인구동향조사」

국가데이터처(2025). 「인구주택총조사」

국가데이터처(2015~2016, 2020~2024). 「인구총조사」

농림축산식품부(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조사 결과 보고서」

성평등가족부(2015, 2018, 2021, 2023, 2024). 「가족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 2024). 「가족과출산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가족패널조사」(2022)